

한광호씨가 소장한 티베트 불화 '탕카' 컬렉션

한빛문화재단 한광호 이사장이 소장한 2500여점의 티베트 불화(佛畵) '탕카' 명품을 소개한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컬렉션으로, 대개 면(綿) 바탕에 광물성 채색과 금니(金泥)로 제작됐다. / 편집자

탕카



녹색타라보살 Green Tara, 티베트, 17세기 말~18세기, 면본채색(綿本彩色), 153.7×98.0cm
관음보살의 눈동자(타라)에서 태어난 보살(여성성을 지닌 보살)로 초복(招福), 재운(財運) 등과 관련이 있다.

라마취빠 축상 Lama-offering Lineage Tree(Bla-ma mchod-pa Tshogs-shing), 티베트, 면본채색(綿本彩色), 115.0×75.0cm
이 작품은 티베트 불교 겐록파의 시조인 쉐카빠(1357~1419)를 중심으로 하는 '라마취빠' 축상이다. 티베트는 인도에서 직접 불교를 받아들였는데, 이후 각 종파는 자기 종파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시조와 역대 조사(祖師), 인도의 이담(수호존)을 나무 형태로 그려넣은 축상을 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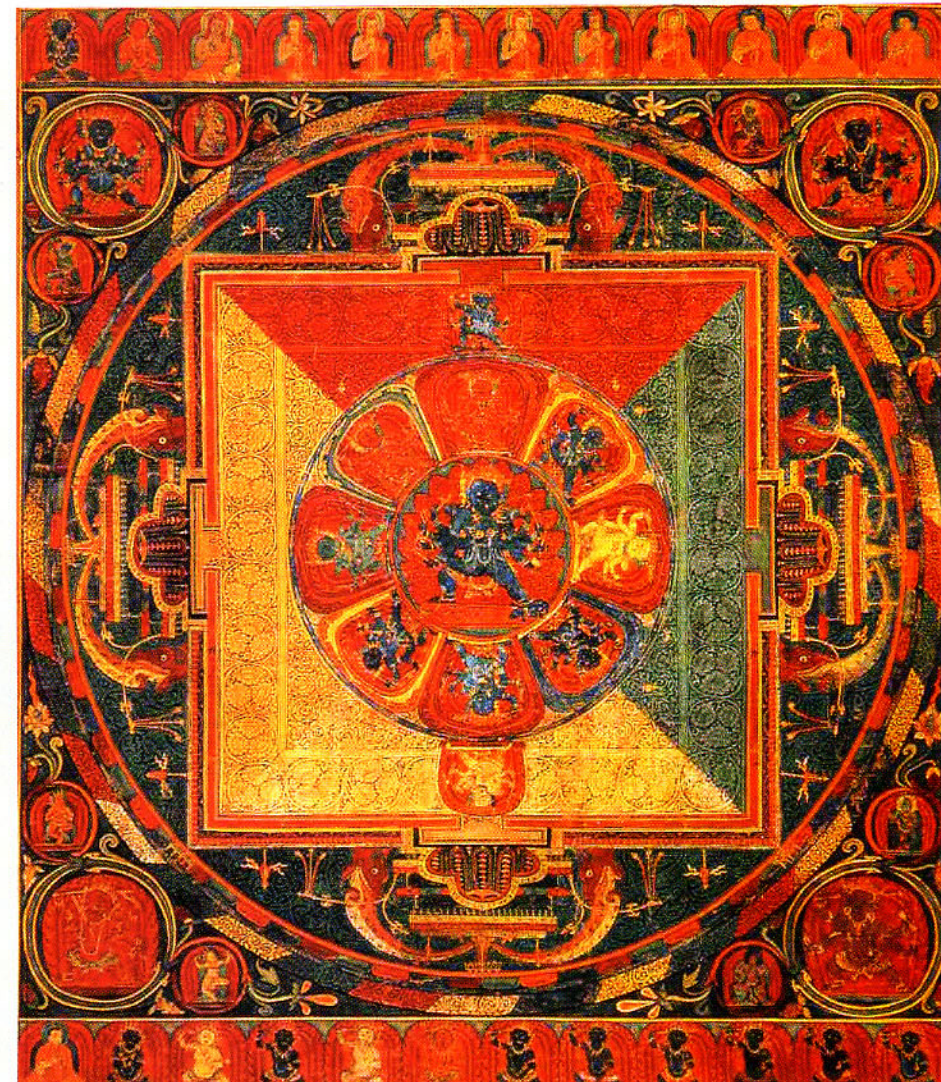
헤바즈라 Hevajra, 티베트, 18~19세기, 면본채색(綿本彩色), 63.0×49.5cm
헤바즈라는 티베트의 대표적인 수호존이다.



십육나한도해도(十六羅漢渡海圖) Sixteen Arhats Crossing the Ocean, 티베트, 19~20세기, 면본채색(綿本彩色), 52.0×39.0cm
상부에 오른손으로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을 취한 석가여래를, 그 하단부에는 16 나한이 배나 동물을 타고 바다를 건너는 장면을 묘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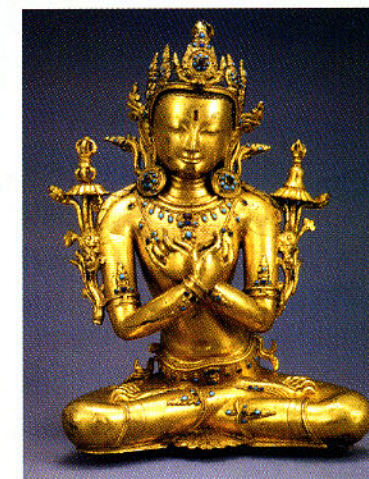


바즈라바이라바 만다라 Vajrabhairava Mandala, 티베트, 면채색(綿彩色), 71.0×55.0cm
티베트의 대표적인 불교회화인 만다라(曼荼羅) 그림의 이론을 상징적으로 체계화해 설명한 그림)로 중앙에 바즈라바이라바(수호존의 하나) 13존을 묘사하였다.



바즈라훔카라 만다라 Vajrahumkara Mandala, 티베트, 14~15세기, 면본채색(綿本彩色), 55.5×46.0cm
이 만다라는 중국, 일본 밀교(密敎)의 삼세명왕(降三世明王: 대중을 교화하기 위해 분노의 형태로 나타난 보살의 일종)에 해당하는 바즈라훔카라를 주존으로 하고 있으며 주위에 시방(十方)을 수호하는 10대 분노명왕 등이 배치되어 있다. 2003년 9월 'Tibetan Legacy(티베트의 유산)' 전시도록 표지를 쓰였다.

조각·공예



지금강불(持金剛佛) Vajradhara, 서부 티베트, 15~16세기 초, 금동제(金銅製), 높이 37.5cm 금강계(金剛界) 밀교의 근본불(根本佛)이다.



티베트 사자(死者)의 서(書) Bar-do-thos-grol, 티베트, 견본금은니채색(紙本金銀泥彩色), 20.0×58.7cm
이 경전은 사망과 환생의 중간 상태인 '바르도(bardo)'에서의 윤회 과정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티베트인들은 죽은 이가 경전의 내용을 한 번 듣는 것만으로도 생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장례의식 때 사자(死者)를 위해 이를 독송한다.